



[페블로:인사이트] Applied Intuition

페블러스 관점의 기업&비즈니스 분석 보고서

- 기획: 페블러스 경영지원실
- 감수: 이주행 (페블러스 대표, 공학박사)
- 작성일: 2026-02-18
- 분석 프레임워크: 기업 프로필 → 제품·기술 스택 → 시장전략·확장경로 → 수익모델·재무지표 → 페블러스 대비 겹침/공백 → 위협·기회·교훈

요약

Applied Intuition은 2017년 설립 이후 8년 만에 **기업가치 \$150억, ARR \$4.15억 (2024), 2025년 말 ~\$10억** 전망을 달성한 피지컬 AI 분야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에서 출발해 Vehicle OS, 국방(전 도메인 자율화), 건설·광업·농업으로 체계적으로 확장 중이며, Top 20 글로벌 자동차 OEM 중 18곳과 미 국방부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페블러스 관점에서 Applied Intuition은 **직접 경쟁자라기보다 "도메인이 다른 거인"** 이다. Applied Intuition은 차량·국방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검증에 특화되어 있으며, 페블러스가 핵심으로 삼는 **"데이터 품질 자동 진단 → 정밀 합성데이터 생성 → 규제 증적 패키지"**의 통합 루프는 Applied Intuition의 로드맵에 부재하다. 그러나 Applied Intuition이 건설·광업·제조로 "all-domain" 확장을 선언하고 서울 오피스를 운영 중인 점은 중장기적 경계 요소다. 동시에, 모듈형 Land & Expand 전략, 85% 매출총이익률의 순수 SaaS 모델, 정부→상용 Dual-Use 전환 등은 페블러스가 참고해야 할 교과서적 실행 청사진이다.

1. 기업 프로파일

항목	내용
설립	2017년, 미국 Mountain View, CA
창업자	Qasar Younis (CEO), Peter Ludwig (CTO)
기업가치	\$150억 (Series F, 2025.06)
총 투자유치	\$12억+
ARR (2024)	~\$4.15억 (YoY +100%, 2023년 \$2.07억)
ARR 전망 (2025)	~\$10억
매출총이익률	85%
직원 수	1,273명
글로벌 오피스	Mountain View, Washington D.C., San Diego, Fort Walton Beach, Ann Arbor, London, Stuttgart, Munich, Stockholm, 서울, 도쿄 (10+)
주요 투자자	BlackRock, Kleiner Perkins, Fidelity, General Catalyst, Lux Capital, a16z, Qatar Investment Authority,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Franklin Templeton, Elad Gil
주요 고객	Top 20 글로벌 자동차 OEM 중 18곳 (Toyota, Porsche, VW Group, Stellantis, Nissan, Isuzu 등), 미 국방부, Komatsu, TRATON Group
핵심 인	EpiSci (2025.02, 공중·해상·우주 자율화), SceneBox (데이터 관리),

수	Ghost Autonomy 특허 포트폴리오 독점 라이선스
주요 파트너십	OpenAI (AI 모델 통합, 2025.07), SNC (대공방어), AEVEX Aerospace, Northrop Grumman Beacon, ORNL (Golden Dome)

핵심 포지셔닝: Applied Intuition은 스스로를 "Vehicle Intelligence Company"로 정의하며, Tesla의 수직통합(Mac 모델)에 대비되는 **수평적 "안드로이드" 모델**을 지향한다. 어떤 OEM이든 라이선스하여 자율주행·차량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벤더-중립적 인프라를 제공한다.

2. 제품·기술 스택

Applied Intuition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3개 핵심 기둥 × 20+ 제품 모듈의 모듈형 아키텍처로 구성된다.

2.1 Tools & Infrastructure (14개 제품군)

시뮬레이션·데이터 관리·ML 도구의 통합 체인이다.

제품	역할
Object Sim (Simian)	객체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생성, 차량·보행자·교통 환경 모델링
Sensor Sim (Spectral)	센서 시뮬레이션 — 카메라, LiDAR, 레이더의 고충실도 물리 모델
Log Sim	실제 주행 로그 기반 재생 및 변형 시뮬레이션
Cloud Engine	대규모 병렬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실행
Neural Sim	생성형 AI 기반 시뮬레이션 (뉴럴 렌더링)
HIL Sim	Hardware-in-the-Loop 시뮬레이션

VehicleSim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Data Explorer	대규모 주행 데이터 탐색·관리 (수백 PB 처리)
Synthetic Datasets	합성 데이터셋 생성·관리
Validation Toolset	검증·테스트 관리 도구
Test Suites	체계적 테스트 시나리오 라이브러리
Map Toolset	HD 맵 관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타일 아키텍처)
Applied Intuition Copilot	AI 기반 시나리오 자동 생성 도구

2025년 기술 성과: 고객이 **5,000만 건 이상의 시뮬레이션** 실행, 수십억 주행 마일 검증. 수백 PB의 학습 데이터 처리, 수백만 프레임의 인식·계획·제어 성능 개선. 수조 건의 플랫폼 요청 처리.

2.2 Vehicle OS (차량 운영체제)

제품	역할
On-board Platform	차량 탑재 소프트웨어 플랫폼
Off-board Platform	클라우드 기반 차량 관리·업데이트
Workbench	개발자 도구·IDE
Hardware	차량 탑재 하드웨어 플랫폼
Cabin Intelligence	인포테인먼트·운전자 경험 AI (Stellantis와 다년 계약)

2.3 Self-Driving System (자율주행 스택)

- **SDS for Automotive:** 승용차용 자율주행 스택 (2026.01 유럽 출시)
- **SDS for Mining & Construction:** Komatsu와의 파트너십으로 광업 자율화
- **SDS for Trucking:** TRATON Group(Scania, MAN, VW Truck & Bus) 배치

2.4 Defense (국방)

제품	역할
Axion	전 도메인 자율화 툴체인 — 개발부터 미션 실행까지
Acuity	탑재형 자율화 소프트웨어 (Ground Autonomy, Mission Control)

2025년 국방 확장: EpiSci 인수로 AI 전투기 조종, 드론 스웸, 해양 추적 역량 통합. DoD \$2.49억 BPA 확보, AFWERX Autonomy Prime 선정, 미 하원 군사위원회 CTO 증언, UK Dstl 스웸밍 계약, SNC 대공방어 파트너십, ORNL Golden Dome 디지털 증명장 시연.

2.5 최근 기술적 이정표 (2025)

- **OpenAI 협력 (2025.07):** 프론티어 AI 모델을 시뮬레이션 플랫폼에 통합, 더 현실적인 인간-에이전트 상호작용 및 엡지케이스 테스트
- **Ghost Autonomy 특허 포트폴리오:** 자율주행·ADAS 전반의 IP 독점 라이선스
- **ISO/SAE 21434 사이버보안 인증 완료**
- **Action Graph:** 하드웨어·클라우드 환경 간 재현 가능한 ADAS 시뮬레이션·로그 리플레이

3. 시장 전략·확장 경로

Applied Intuition의 확장은 자율주행 → Vehicle OS → 국방 → 전 도메인 자율화의 체계적 동심원 확장이다.

3.1 확장 타임라인

시기	전략 단계	핵심 이벤트
	자율주	

2017-2022	행 시물 레이션 독점	Simian → Spectral → Basis로 모듈 확장. Top 20 OEM 중 18곳 고객 확보
2023-2024	Vehicle OS + 국 방 진출	차량 OS 사업 시작. DoD \$2.49억 BPA, 미 하원 증언. SceneBox 인수. Series E \$2.5억(\$60억 밸류)
2025	전 도메 인 자율 화 선언	EpiSci 인수(공중·해상·우주), Series F \$6억(\$150억), SDS 유럽 출시, Komatsu 광업, Stellantis 인포테인먼트, OpenAI 협력, SNC 대공방어
2026.01-02	국방 가 속 + 글 로벌 확 장	ORNL Golden Dome 시연, UK Dstl 스워밍 계약, Fort Walton Beach 항공 자율화 오피스

3.2 산업 포트폴리오

산업	진출 시 기	핵심 고객/파트너	성숙도
Automotive	2017~	Toyota, Porsche, VW, Stellantis, Nissan 등 18/20 OEM	●●●●●
Trucking	2022~	TRATON Group (Scania, MAN, VW Truck), Kodiak, Torc	●●●●○
Defense	2024~	DoD, SNC, AEVEX, Northrop Grumman, UK Dstl	●●●●○
Mining & Construction	2025~	Komatsu	●●●○○
Agriculture	2025~	초기	●●○○○

Aerial / Maritime / Space	2025~	EpiSci 역량 기반, Fort Walton Beach 오피스	●●○○○
---------------------------------	-------	--	-------

3.3 전략적 패턴: Palantir 경로의 재현

Applied Intuition의 확장 패턴은 Palantir(CIA→상용, 17년 만에 수익성), Anduril(DHS→광범위 국방, 7년 만에 \$10억 매출)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 정부/국방에서 기술 검증 + 신뢰 구축 → 상용 시장의 차별화 무기로 활용
- "Dual-Use" 기술 전략: 동일한 시뮬레이션·자율화 플랫폼이 민간과 군사 양쪽에 적용
- CTO Peter Ludwig의 미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은 "정책 입안자와의 관계 구축"이라는 Palantir/Anduril 공통 전략의 실행

4. 수익 모델·재무 지표

4.1 재무 성장 궤적

지표	2023	2024	2025 (전망)
ARR	\$2.07억	\$4.15억	~\$10억
YoY 성장률	—	100%	~140%
매출총이익률	~85%	~85%	~85%
기업가치	—	\$60억 (Series E)	\$150억 (Series F)
EV/ARR 배수	—	~14.5x	~15x

비교 벤치마크: Ansys \$25.4억 매출(~14x로 Synopsys에 \$350억 인수), Anduril \$10억 매출(~14x 밸류), Tesla ~10x EV/Revenue.

Applied Intuition의 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ARR (연간반복매출) —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료 수입입니다. 넷플릭스 월정액처럼, 고객이 매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이죠. 2023년 약 3천억 원에서 2024년 6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배, 2025년에는 1.4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이 속도는 이례적입니다.
- 매출총이익률 85% — 1,000원 팔면 85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공장이나 원재료가 필요 없고, 같은 프로그램을 고객 1명에게 팔든 100명에게 팔든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 40% 수준이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마진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 EV/ARR 배수 ~15x — "이 회사의 가치가 연매출의 몇 배인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Applied Intuition은 연매출의 약 15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비싼 건지 보려면 비슷한 회사와 비교하면 됩니다.
 - Ansy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연매출의 14배 가격으로 Synopsys에 인수됨
 - Anduril (국방 AI): 연매출의 14배 기업가치
 - Tesla: 연매출의 10배 수준

즉, Applied Intuition의 15배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이지만 터무니없진 않다"고 보는 수준입니다. 매년 매출이 2배씩 뛰고 있으니 성장 속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죠

한 줄 요약: 매출 매년 2배 성장, 팔면 85%가 남고, 시장은 이 회사를 연매출의 15배로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4.2 수익 모델 구조

핵심 모델: 모듈형 Land & Expand SaaS

1. **진입 (Land):** 하나의 모듈(예: Simian 기본 시뮬레이션)로 시작. 고객 내 특정 엔지니어링 팀이 PoC 후 채택
2. **확장 (Expand):** Spectral(센서) → Basis(데이터) → Safety Framework →

Vehicle OS → SDS로 모듈 추가. 엔지니어링 시트 수 확대

3. **깊이 (Deepen):** 시나리오 라이브러리·테스트 스위트 축적 → 전환비용 급증 → 대체 불가 위치 확보

수익원 다각화: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독 (핵심)
- 구현 지원·컨설팅·교육 서비스 (보조)
- 국방 프로젝트 기반 계약
- 합성데이터 관리 서비스 (신규 확장)
- 향후: 배치된 차량 플릿 기반 SaaS (실시간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

85% 매출총이익률의 비결: 핵심 제품이 소프트웨어이므로 수천 VM에 비례적 배포 비용 증가 없이 확장 가능. 자산 경량(asset-light) 구조. 고객 유지율이 높은 것은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에 깊이 임베딩되어 전환비용이 극도로 높기 때문.


5. 페블러스 대비 겹침/공백 분석

5.1 역량 비교 매트릭스

역량 영역	Applied Intuition	페블러스	관계
물리 시뮬레이션	✅ 최고 수준 (AV/국방, 수십억 마일 검증)	⚡ 구축 중 (제조·공정 디지털 트윈)	도메인 상이 — 보완적
합성데이터 생성	✅ Synthetic Datasets, Neural Sim	✅ PebbloSim, Vector-to-Param 정밀 타겟	범용 생성 vs 정밀 처방 생성
AI 데이터 품질	△ 부분적 (Validation Toolset, 테스트 중)	✅ 핵심 차별화 (Data Clinic, 뉴로-	페블러스 고유 영역

진단	심)	심볼릭)	
데이터 OS/관리	✅ Data Explorer (수백 PB)	✅ Data Greenhouse (온톨로지 기반)	규모 vs 지능
규제 대응 증적	△ 부분적 (ISO 21434, 안전 프레임 워크)	✅ (목표) EU AI Act + ISO 42001 증적 패키지	페블러스 차별화 기회
Vehicle OS / 자율주행	✅ 핵심 (SDS, Cabin Intelligence, 전 도메인)	— 해당 없음	비겍침
제조·공정 품질검사	— 미진출	✅ 현대차, 한화비전 실증. 피지컬AI 확장	페블러스 독보적 영역
국방	✅ 급확장 (DoD \$2.49억, EpiSci)	△ 초기 (육군·해병대 과제)	규모 차이 크나, 한국 소버린 국방은 기회
진단→생성 자동 연동	❌ 부재	✅ (목표) Vector-to-Param 역변환	페블러스 구조적 고유 역량
워크플로우 임베딩 깊이	✅ 극도로 높음 (시나리오 라이브러리 축적)	△ 구축 초기	핵심 학습 포인트

5.2 겍침·공백·공존·학습 4분면

 본 분석에서 사용한 4분면은 경쟁전략의 핵심 개념 네 가지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조합한 것이다.

- 겍침(Overlap) — Competitive Overlap Analysis. 두 기업의 제품·시장

이 충돌하는 영역을 식별한다. Michael Porter의 경쟁전략(1980) 이래 기본적인 분석 도구.

- 공백(Gap) — White Space Analysis. 경쟁자가 점유하지 않은 시장 기회를 찾는다. Mark Johnson, Seizing the White Space(2010)가 대표적.
- 공존(Coexist) — Coopetition(Cooperation + Competition). 경쟁자 이면서 동시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게임이론 기반 전략. Brandenburger & Nalebuff, Co-opetition(1996).
- 학습(Learn) — Competitive Benchmarking. 경쟁자의 모범 사례에서 배우는 체계적 방법론. Robert Camp, Benchmarking(1989, Xerox). 각 개념은 독립적으로 널리 사용되나, 4분면 매트릭스로 결합한 구성은 본 보고서의 분석 틀이다. 유사한 학술 프레임워크로 Brandenburger-Nalebuff의 Value Net 모델(고객·공급자·경쟁자·보완자의 4축 관계 분석)이 있다.

겹침 영역 (경계 필요)

- **시뮬레이션 기반 합성데이터.** Applied Intuition은 AV/국방, 페블러스는 국방/제조/공정에 특화되어 현재 도메인이 일부 겹친다. Applied Intuition이 건설·광업·제조로 확장 중이고 페블러스도 피지컬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중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충돌 가능성 존재. 서울 오피스의 존재도 주목 요소.

공백 영역 (페블러스 고유)

- **"진단→생성→증적" 통합 루프.** Applied Intuition에는 데이터 공백을 자동 진단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정밀 생성하는 폐루프(Closed-Loop) 시스템이 없다. Applied Intuition사의 Validation Toolset은 "테스트 결과 검증"이지 "데이터 품질 진단 → 처방"이 아니다. EU AI Act/ISO 42001 수준의 규제 증적 패키지도 부재. 이것이 페블러스의 가장 강력한 구조적 차별화.

공존 가능 영역 (파트너십 기회)

- **디지털 트윈 품질 레이어.** Parallel Domain이 NVIDIA Cosmos 위에서 AV 합성 데이터를 제공하듯, 페블러스는 NVIDIA·Applied Intuition·Siemens 같은 인프라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 품질 보증 + 규제 증적" 레이어를 제공하는 포지션이 가

능. 경쟁이 아닌 보완적 생태계 참여.

학습 포인트 (벤치마크)

- 모듈형 Land & Expand 전략, 정부과제 → 상용 전환(Dual-Use), 85% 매출총이익률의 순수 SaaS 모델, M&A를 통한 TAM 확장(EpiSci 인수) — 모두 페블러스가 참고할 실행 청사진.

6. 위협·기회·교훈

6.1 위협

위협 1: 서울 오피스와 한국 OEM 관계 심화

Applied Intuition은 이미 서울에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한국 자동차 OEM(현대·기아)과의 관계를 심화하면, 페블러스의 현대차 사업과 간접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Applied Intuition은 차량 시뮬레이션/ADAS, 페블러스는 제조 데이터 품질이라는 도메인 차이가 현재로서는 방어벽으로 작동.

위협 2: "All-Domain" 확장의 압력

Applied Intuition이 건설·광업·농업·제조로 확장하면서 "모든 움직이는 기계에 지능을"이라는 미션을 실행 중이다. 제조 공정의 디지털 트윈·시뮬레이션까지 진출할 경우, 페블러스의 PebbloSim과 직접적 경쟁 가능성. 특히 ~\$10억 ARR의 R&D 투자력은 위협적.

위협 3: 생태계 잠금 효과

Applied Intuition의 제품군이 워크플로우에 깊이 임베딩되면, 해당 고객이 데이터 품질·합성데이터도 Applied Intuition 생태계 내에서 해결하려 할 수 있다. "이미 쓰는 플랫폼에서 다 되는데 왜 별도 솔루션을?"이라는 관성.

6.2 기회

기회 1: Applied Intuition이 만들지 않는 것

Applied Intuition에 부재한 3가지 역량:

1. 데이터 공백 자동 진단 — 뉴로-심볼릭 방식으로 데이터의 과밀·공백·편향을 자동 탐지
2. 진단→생성 루프 자동화 — Vector-to-Param 역변환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정밀 타겟 생성
3. 규제 증적 패키지 — EU AI Act/ISO 42001 수준의 "왜, 어떤 근거로 데이터를 생성했는가"의 완전한 감사 기록

이 세 가지는 \$150억 기업도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적 공백"이다.

기회 2: 인프라 플랫폼의 "품질 레이어" 파트너

Parallel Domain이 NVIDIA Cosmos 위에서 독립 기업을 유지하면서 핵심 파트너로 활동하듯, 페블러스는 NVIDIA·Applied Intuition·Siemens 같은 인프라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 품질 보증 + 규제 증적" 레이어를 제공하는 포지션 가능. 페블러스 비즈니스 모델 보고서에서 제안한 전략의 실질적 실행 경로.

기회 3: 한국 소버린 국방·제조 독점적 위치

Applied Intuition은 미국·유럽 국방에 집중. 한국 정부의 피지컬 AI 4,022억 원 예산, 국방 피지컬 AI 1,000억 원, 한국 제조업 AI 전환은 "소버린 기술"을 요구하며, 한국 기반 기업인 페블러스에 구조적 유리.

6.3 교훈

교훈 1: 워크플로우 임베딩이 생존의 열쇠

Applied Intuition의 성공 핵심은 고객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에 깊이 박힌 것이다. 한번 시나리오 라이브러리와 테스트 스위트를 구축하면 전환비용이 극도로 높아진다. 페블러스도 Data Greenhouse가 고객의 데이터 운영 프로세스에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 Tonic.ai가 CI/CD 파이프라인에 임베딩되어 GenAI 파도를 버텼듯, 워크플로우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방어 핵심.

교훈 2: Dual-Use로 정부→상용 전환

Applied Intuition은 DoD BPA로 기술을 검증하고 신뢰를 구축한 뒤, 이를 상용 시장의 차별화 무기로 활용했다. 페블러스의 과기정통부 61억 원 과제, 군 과제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성공적 전환의 핵심 규율: **정부과제 매출 비중을 50% 이하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상용 제품 개발을 병행.

교훈 3: 모듈형 Land & Expand

Data Clinic(진단) 하나로 진입 → Data Greenhouse(OS) 확장 → PebbloSim(생성) 추가 → 규제 증적 패키지 업셀. Applied Intuition의 Simian→Spectral→Basis→Vehicle OS 확장과 동일한 패턴을 페블러스 제품 포트폴리오에 적용 가능.

교훈 4: M&A를 통한 TAM 확장

Applied Intuition은 EpiSci 인수로 단숨에 공중·해상·우주 도메인을 확보했다. 페블러스도 성장 과정에서 인접 기술(3D 에셋 생성, 도메인 특화 시뮬레이터 등)의 전략적 인수·파트너십을 통해 TAM을 확장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교훈 5: 속도가 핵심

Applied Intuition은 8년 만에 \$150억 기업이 되었다. Datagen은 \$7,000만을 유치하고도 피봇 속도가 느려 \$2,000만을 남기고 폐업했다. "계획"이 아닌 "작동하는 제품"으로의 전환 속도가 생존을 결정한다. PebbloSim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결론: 규모의 차이는 크지만, 빈 자리도 크다

Applied Intuition은 \$150억 기업가치에 ARR \$10억을 향해 달리는 피지컬 AI의 거인이다. 그러나 이 거인도 만들지 않는 것이 있다 — 데이터의 공백을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한 것만 정밀 생성하며, 그 과정을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명하는 시스템.

페블러스의 "Data Greenhouse + Data Clinic + PebbloSim" 통합 루프는 이 구조

적 공백을 정확히 겨냥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그만큼 아직 아무도 점유하지 않은 자리도 많다.

Applied Intuition이 페블러스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다:

1. "워크플로우에 박혀라" —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고객 프로세스에의 임베딩 깊이가 \$150억의 해자를 만들었다
2. "빨리 움직여라" — 이 거인이 제조·공정 도메인까지 확장하기 전에, 페블러스만의 통합 루프가 작동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있어야 한다

다음 분석 대상 후보: NVIDIA (Omniverse + Cosmos 생태계), Scale AI (데이터 플라이휠의 교본), Siemens (산업 디지털 트윈), Palantir (정부→상용 전환의 원조)

본 분석은 페블러스 경쟁기업 분석 프레임워크(6단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분석 프레임워크: 기업 프로필 → 제품·기술 스택 → 시장전략·확장경로 → 수익모델·재무지표 → 페블러스 대비 겹침/공백 → 위협·기회·교훈

Pebblous

Pebblous Makes Data Tangible

contact@pebblous.ai